

일일 국제 기후·에너지 동향

신재생에너지

◆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소 발전량 감소 동향(주인도네시아대사관)

- 최근,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관계자는 인니 수력 발전 산업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산림 벌채로 인한 수력발전소 발전량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함.
 - 동 관계자는 상류 지역의 벌목으로 인해 퇴적물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하천 유량이 감소, 결과적으로는 댐의 수량이 줄어들면서 발전소의 발전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
- 아울러,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강수량 감소 역시 수력 발전량에 영향을 주고 있음.
 - 인니 국영전력공사(PLN)에 따르면 산림벌채,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수량 감소로 인해 작년에 남부 술라웨시 지역 수력발전소 발전량이 75%(800MW→200MW) 감소
- 이는 생산 전력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부채상환 등 발전소 운영의 재정적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됨.
 - 이외에도 부족한 전력을 석유·가스 발전소를 통해 메우게 되면서 전력 생산비용 증가* 문제 발생
- * 수력발전소 kW당 생산 비용은 Rp.600인 반면 석유·가스는 Rp.2,500
-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동 문제 해결에 있어 발전소 운영기업과 지역사회의 역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히, 발전소 기업이 환경 등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도 도입해야 한다고 함.

◆ 미쓰비시 상사 등, 일본 내 수소제조거점 검토 동향(주삿포로총영사관)

- 일본 현지 보도(9.10)에 따르면, '그린 수소' 공급 사업을 검토중인 미쓰비시 상사(도쿄) 등 홋카이도 내외 4개사는 삿포로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社 공장에 인접한 치토세시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를 수소 제조거점 건설지로 유력하게 검토중임.
 - 동 제조거점은 2027년도에도 가동할 예정이며, 반도체 제조에 활용하는 수소의 라피더스 공급을 계획중이며, 보일러의 열원으로 신치토세 공항에 제공하는 것도 목표중 하나
- 이번 사업에는 미쓰비시상사 외에 홋카이도전력, 에어워터 홋카이도, 공조 설비 대기업인 타카사코 열악공업(도쿄)이 참가하며, 4개社와 치토세시가 함께 건설지를 검토하고 있음.
 -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수소 제조시설 후보지는 치토세시 내 비비 지구에 있는 '환경 센터' 권역이며, 현재 미사용중인 부지 일부를 동 제조시설로 활용할 예정
 - 치토세시가 별도로 계획하는 수소제조 거점과 합산하면 2030년도 시점에 연간 약 3천 톤의 수소 제조가 가능할 전망. 끝.